

자기통제의 안정성과 낮은 자기통제 수준에서 상황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 현 수*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일반이론에서 가정하는 자기통제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특성으로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은 8~10세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의 수준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자기통제가 범죄나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통제의 두 가지 특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2패널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고,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의 변화유형 집단은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들 집단의 자기통제 수준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통제가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집단만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행의 유무나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비행이 자기통제와 함께 상황적 요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주제어 : 자기통제의 안정성, 청소년 비행,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은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 청소년은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피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범죄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일반이론은 Gottfredson과 Hirschi가 1990년에 『범죄의 일반이론』을 출간한 이후에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론이다. 일반이론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로는 개인의 성향만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가 8~10세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개인의 자기통제의 수준은 거의 일생동안 지속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이론은 이와 같은 자기통제의 특징으로 인해 범죄자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범죄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반면,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 간의 이질성은 특정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생동안 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경력범죄자에 이르게 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이처럼 일반이론에서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각 개인에게 거의 일생동안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개인적 특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반이론에 대한 또 다른 논란으로는 자기통제가 범죄행위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비행과 같이 범죄와 유사한 행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이론은 사회환경적 요인보다는 어린 시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 수준의 차이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간의 이질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범죄나 비행을 더욱 저지른다는 사실을 지지해왔다. 그렇지만 자기통제력의 수준만으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자기통제는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비행과 범죄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어 비행이나 자기통제가 범죄의 단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범죄를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통제와 독립적으로 여전히 범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ratt and Cullen, 2000).

일반이론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가 범죄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이론이 범죄를 설명하는 유효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자기통제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자기통제의 특성에 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가 변화하지 않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통제와 외적 환경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통제의 안정성

Gottfredson과 Hirschi는 1990년에 『범죄의 일반이론』에서 범죄나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에 따라 범죄를 억제하는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충동적, 지속성 부족, 위험추구, 계획성의 부재,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장기간의 보상에 대한 불만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력의 특징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릴 수 있는 우연한 기회에도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반면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이후의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자기통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조기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자기통제의 형성 시기는 대략 8~10세에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자기통제의 수준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반이론에서 자기통제는 개인의 생애과정(life-course)에서 지속되는 안정성(st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자기통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동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경력범죄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가 생애과정에서 특정 시기마다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통제의 수준이 지속된다는 의미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자기통제와 같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안정성은 절대적 안정성과 상대적 안정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절대적 안정성은 특정 개인 내에서 해당 특성의 수준이 시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은 해당 특성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Gottfredson과 Hirschi는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몇몇 연구는 자기통제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자기통제 수준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 자기통제의 평균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지지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Arneklef et al., 1998; Raffaelli et al., 2005; Yun and Walsh, 2010).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의 평균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Turner and Piquero, 2002; Vazsonyi and Huang, 2010; Winfree et al., 2006).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절대적 안정성이라는 의미에서 각 시기별 자기통제 수준의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인 자기통제 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통제 수준의 평균은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절

대적인 안정성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미는 몇몇 연구들에서 상대적 안정성으로 이해하고 있다(Mitchell and Mackenzie, 2006; Paternoster et al., 1997; Sampson and Laub, 1993; Turner and Piquero, 2002). 또한 개인적 특성으로 안정성에 대한 가정에 관하여 Jensen(1980)은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 측정들 간의 상관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특정 변인에 대한 안정성이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안정성 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기통제의 안정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기통제의 안정성은 개인 내에서는 시기에 따라 절대적인 수준이 변화할 수 있으나, 개인 간의 순위(ranking)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urner and Piquero, 2002).

2. 자기통제와 상황적 요인 간의 관계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은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범죄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교제 등에 상관없이 개인의 어린 시기에 형성된 자기통제의 수준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사회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기통제와 같은 개인적 성향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황적 요인도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개인적 성향과 상황적 요인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특정 개인의 범죄행위나 비행이 자기통제라는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통제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이후의 상황변화는 간접적으로 범죄나 비행을 더욱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발전범죄학에서 주장하고 있다.

Moffitt(1997)은 범죄자들을 생애지속범죄자(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와 청소년기 한정비행자(adolescence-limited delinquents)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전 생애에 걸쳐 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을 생애지속 범죄자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생애지속 범죄자가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나 비행은 저지르는 개인적 성향을 현시적 결과(contemporary consequences)로 보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데에는 개인의 문제성향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변화가 이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의 문제성향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 소홀 등 주위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문제성향을 가진 사람은 친사회적 성향을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만, 그 결과로 생애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누적적 결과(cumulative consequences)도 범죄나 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offitt은 범죄나 비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누적적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문제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주위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둘째로는 임신, 마약, 학업포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자신의 문제행위로 부정적인 낙인이 부여되면 좋은 직장, 교육, 결혼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Moffitt, 1997; 이순래·박철현, 2000).

또한 Agnew(1997)는 일생동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지속적인 범죄자의 범죄원인을 공격성향(aggression)과 같은 개인의 성향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공격성향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많은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향으로 인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격성향으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처우를 받기 때문에 인습적인 친구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기 어렵게 되고, 범죄적 성향을 가진 친구집단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처우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초

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방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통제와 상황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범죄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회요인과 같은 외적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기회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적당한 외부적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통제력과 기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Akers and Sellers, 2004).

일반이론이 제기된 이후의 몇몇 학자들은 기회요인을 일반이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Barlow 1991; Grasmick et al., 1993). 이들은 일반이론에서 제시된 자기통제와 기회요인 간의 불명확한 관계에 대해,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 기회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Gottfredson과 Hirschi(2003)는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한(limitless) 것이며, 사람들 간의 주어진 기회의 차이는 오히려 자기통제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기통제력과 기회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비행이나 범죄에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자기통제력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에 상반되는 두 가지 경험적 연구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기회는 전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낮은 자기통제를 통제한 후에도 기회의 주효과와 자기통제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회가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Hay and Forrest, 2008). 예를 들면, Longshore(1998)의 연구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범죄자들은 6개월 동안 재산범죄 기회를 평균 13번 인지하였다. 그렇지만 인지된 기회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구간이 200 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슷한 자기통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지된 기회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쉽게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박현수, 2011 재인용).

자기통제와 기회 간의 관계에 대한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와 기회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Baron et al., 2007; Hay and Forrest, 2008; 노성호, 2007; 박현수, 2011; 이성식, 2005; 이성식, 2006). 그리고 Gottfredson과 Hirschi가 기회요인을 부정하였던 이유에 대해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이 실제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론의 간결성(simplicity)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Hay and Forrest, 2008; Simpson and Geis, 2008). 이처럼 범죄의 단일 원인으로 자기통제를 주장한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와 기회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혹은 기회요인의 영향은 아직도 유효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비행이 어떠한 경로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와 비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등패널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등패널 자료는 2003년에 1차년도 자료를 구축하였고, 6차년도 자료가 구축된 2008년까지 매년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조사하였다. 표집방법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무작위로 인구비율을 산정하고, 모집단 비율에 맞게 대상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3,449명을 조사하였다(이경상·안선영, 2009). 이 연구에서는 중등패널의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1차년도에는 조사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6차년

도에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2. 변인의 측정

1)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일반이론에서 여섯 개의 특성으로 나누어 낮은 자기통제를 설명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 지속성 부족, 위험추구, 계획성의 부재,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장기간의 보상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자기통제가 측정되었다. 이들 각 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단일 차원으로 자기통제를 구성하기 위해 각 문항의 총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석의 편의상 각 문항들을 역부호화하여 자기통제 변인의 값이 낮을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변화유형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자기통제의 수준이 아닌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비행

비행 변인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와 같이 다

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구성하였다. 비행 변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횟수로 측정되었다. 비행 변인은 이상점(outlier)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30회 이상의 비행을 경험한 경우는 모두 30회로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변화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비행의 횟수가 아닌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비행친구의 비율

비행친구의 비율 변인은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친구의 수’, 그리고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친구의 수’와 같은 문항에서 각각 전체 친구의 수를 나눈 값으로 구성하였다. 비행친구의 비율 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694, 2차년도 .771, 3차년도 .679, 4차년도 .756, 5차년도 .694로 나타났다.

4)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 변인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878, 2차년도 .898, 3차년도 .898, 4차년도 .904, 그리고 5차년도 .911로 나타났다.

5) 낙인 및 여가시간

낙인 변인은 ‘나는 나 자신이 문제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낙인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885, 2차년도 .932, 3차년도 .934, 4차년도 .938, 그리고 5차년도 .943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변인은 의식주 생활시간,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학교수업과 개인학습,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간), 직업관련시간(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을 제외한 ‘학기 중 평일의 여가시간’, ‘학기 중 토요일의 여가시간’, ‘학기 중 일요일의 여가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여가시간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통해 자기통제의 안정성과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가 변화하지 않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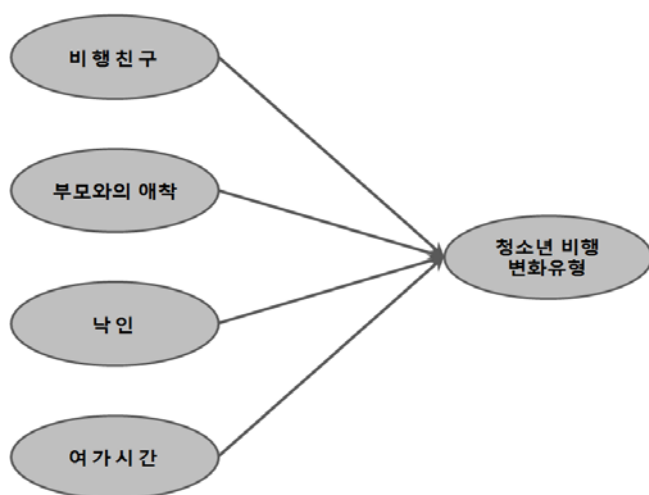
자기통제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와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른 비행의 발생의 정도와 변화가 유사한 조사대상자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자기통제의 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사한 조사대상자를 분류하여 각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도 비행의 발생정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사한 청소년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 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자기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은 유사한 성향의 응답자를 집단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군

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유사하지만 횡단적 자료를 통한 군집분석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발달경로(궤적)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분석기법이다(정익중, 2007). 이 방법을 통해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수준변화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정도에 대하여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유사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청소년을 분류할 수 있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의 분석과정은 먼저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발달궤적(집단)의 수를 찾아내고, 시간에 따른 각 발달궤적의 형태를 정하게 과정을 통해 전체 집단 내에서의 몇몇 유사한 발달궤적을 가진 집단들로 구분할 수 있다(Nagin, 2005).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로는 SAS 프로그램의 PROC TRAJ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첫 번째의 연구문제인 자기통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집단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절대적 의미와 상대적 의미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즉 분류된 잠재집단들의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잠재집단들 간의 순위까지도 바뀌게 된다면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기통제의 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더라도 잠재집단의 순위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반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의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일반이론에서는 범죄나 비행의 단일 원인으로 자기통제를 주장하였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이와 같은 주장은 자기통제가 비행의 발생, 지속, 중단 등의 비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일반이론의 가정이 타당하다면, 비슷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 집단 내에서 다른 상황적 요인들을 통해 비행의 발생빈도와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들이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으로 비행친구,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낙인과 같이 발전범죄학에서 가정한 요인과 낮은 자기통제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인 기회요인으로 여가시간을 통해 살펴본다(<그림 1> 참고).



〈그림 1〉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은 각 시기별로 측정된 독립변인을 이용하도록 한다. 각 시기별 독립변인의 구성은 각 시기별로 측정된 독립변인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기보다는 전년도 대비 변화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만 개인의 특정 독립변인의 수준은 시기마다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변화량만으로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을 설명하게 된다면 1차년도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무시하게 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인의 1차년도 값은 자기상관을 줄이기 위해 측정된 독립변인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2차년도 이후의 독립변인은 전년도 대비 변화량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으로 분류된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 집단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기통제 수준의 안정성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자기통제 변인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Censored Normal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1> 자기통제 변화의 집단 수에 따른 상대적 적합도 및 집단의 비율

집단수	상대적 적합도		집단에 속하는 비율(%)						
	BIC	A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1개	-37809.74	-37794.98	100.00						
2개	-36381.65	-36352.13	52.74	47.26					
3개	-35971.36	-35927.09	55.02	24.84	20.14				
4개	-35895.47	-35836.43	46.73	31.21	17.80	4.26			
5개	-35855.25	-35781.46	45.37	26.90	20.84	4.88	2.01		
6개	-35809.36	-35720.81	44.37	27.21	20.40	5.14	2.04	0.84	
7개	-35793.82	-35690.51	43.15	25.85	20.31	5.12	2.91	2.08	0.58

자기통제의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우선 변화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자기통제의 변화집단의 수는 1개 집단부터 7개의 집단까지 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BIC와 AIC의 값을 살펴보면, 자기통제의 변화집단 수가 1개에서 7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BIC와 AIC의 값으로는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6개와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1% 이하인 집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수는 5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5개의 변화유형 집단에서 각 집단의 변화형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각 집단에 대하여 3차 함수를 적용시키고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함수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2차 함수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차 함수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반복하여 각 집단의 적합한 변화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화유형 집단에서 절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와 자기통제 수준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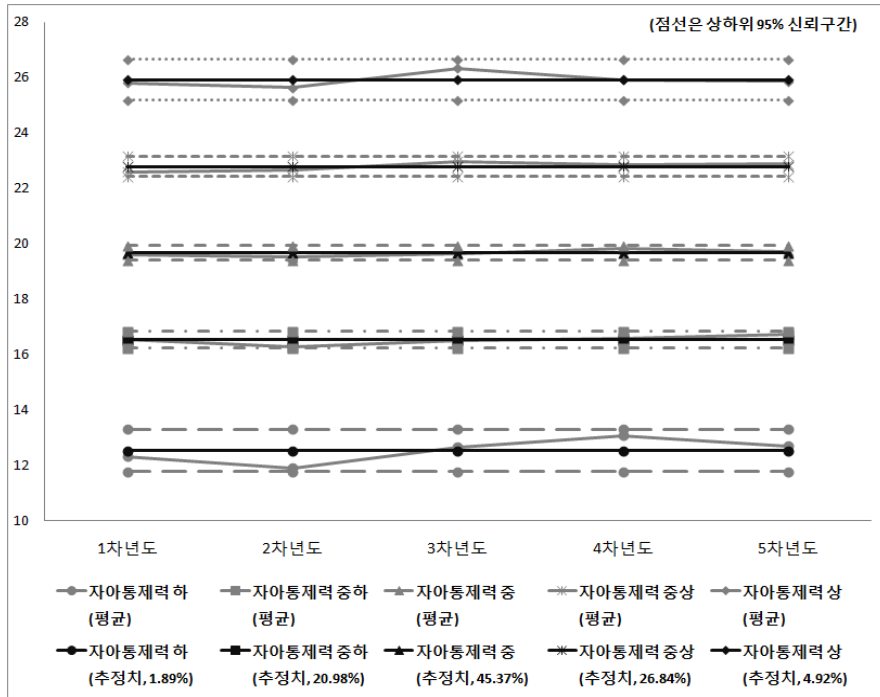
〈표 2〉 자기통제 집단의 추정통계량

집단 구분	함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자기통제력 상	절편(Intercept)	26,032	0,279	93,295***
자기통제력 중상	절편(Intercept)	22,803	0,177	129,077***
자기통제력 중	절편(Intercept)	19,666	0,133	147,511***
자기통제력 중하	절편(Intercept)	16,537	0,152	109,105***
자기통제력 하	절편(Intercept)	12,525	0,344	36,458***

* > 0.05, ** > 0.01, *** > 0.001

자기통제의 변화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자기통제력 하’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수준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청소년 중에서 1.89%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통제력 중하’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기통제력 하’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 중 20.98%가 속해 있다. ‘자기통제력 중’ 집단은 5개의 집단 중에서 중간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 중에서 45.37%가 속해 있었다. ‘자기통제력 중상’ 집단은 5개의 집단 중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 중에서 26.84%가 속해 있었다. ‘자기통제력 상’ 집단은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 중에서 4.92%가 속해 있다. 이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선택한 5개의 자기통제 변화유형 집단은 모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자기통제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자기통제력 수준의 상대적인 순위가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자기통제의 수

준도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2〉 자기통제력의 집단별 변화유형

자기통제력의 수준별로 비행경험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자기통제력 상’ 집단은 1차년도에 .205번의 비행을 저질렀다. 2차년도에는 .071번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 다시 .018번으로 감소하였다. 4차년도에는 .036번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의 비행을 저질렀다. 5차년도에는 .000번으로 비행을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통제력 중상’ 집단은 1차년도에 1.111번의 비행을 저질렀다. 2차년도에는 .856번으로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는 .071번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4차년도에는 .302번으로 증가하였으나 5차년도에는 다시 .044번으로 감소하였다. ‘자기통제력 중’ 집단은 1차년도에 2.125번의 비행을 저질렀고, 2차년도에는 .962번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1.796번으로 증가하였

다. 4차년도에는 .751번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5차년도에도 .612번으로 감소하였다. ‘자기통제력 중하’ 집단은 1차년도에 5.429번의 비행을 저질렀고, 2차년도에는 4.313번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는 2.251번의 비행을 저질러 전년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2.596번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5차년도에는 3.881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기통제력 하’ 집단은 1차년도에 15.325번의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많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8.884번의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차년도에는 3.767번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4차년도에는 5.068번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5차년도에는 1.386번으로 ‘자기통제력 하’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3〉 자기통제력 수준별 비행경험

집단유형	사례수	통계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자기통제력 상	44	평균	.205	.071	.018	.036	.000
		표준편차	.686	.373	.133	.298	.000
자기통제력 중상	545	평균	1,111	.856	.071	.302	.044
		표준편차	8,206	9,675	.692	4,350	.523
자기통제력 중	1,261	평균	2,125	.962	1,796	.751	.612
		표준편차	2,125	.962	1,796	.751	.612
자기통제력 중하	745	평균	5,429	4,313	2,251	2,596	3,881
		표준편차	22,670	22,432	19,006	22,999	48,231
자기통제력 하	112	평균	15,325	8,884	3,767	5,068	1,386
		표준편차	63,216	23,644	10,560	15,676	3,237
전체	2,707	평균	2,624	1,696	1,369	1,040	1,101
		표준편차	15,220	12,637	24,689	12,135	23,439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과 같이 어린 시기에 결정된 자기통제력이 이후 오랫동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기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통제력의 수준에 따라 비행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통제력의 수준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자기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2. 낮은 자기통제력 집단의 비행변화 유형

위의 결과에서 자기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자기통제력 하’ 집단과 ‘자기통제력 중하’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비행변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비행변화 유형을 살펴보는 이유는 자기통제력을 통제하여 이 집단의 비행변화 유형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각 시기별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고, 최대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의 분포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규분포로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에서도 비행은 많은 청소년이 저지르지 않고, 빈도변인이므로 Zero-Inflated Poisson(ZIP)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의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상대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비행변화 집단의 수가 1개에서 6개까지는 BIC와 AI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행변화 집단의 수가 7개인 경우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행변화 집단의 수가 6개인 경우에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집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행변화 집단은 6개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 비행 변화의 집단 수에 따른 상대적 적합도 및 집단의 비율

집단수	상대적 적합도		집단에 속하는 비율(%)						
	BIC	A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1개	-5641.83	-5626.51	100.00						
2개	-4407.34	-4407.34	75.53	24.47					
3개	-4221.83	-4184.62	53.07	31.40	15.52				
4개	-4064.19	-4016.02	52.11	28.02	11.77	8.10			
5개	-3904.58	-3845.47	50.15	27.50	7.82	7.29	7.24		
6개	-3782.72	-3712.66	47.52	15.72	12.94	9.09	9.08	5.65	
7개	-3805.58	-3724.58	43.82	21.43	8.76	8.31	7.28	5.40	5.00

다음으로 6개의 청소년 비행변화 집단으로 결정된 각 집단의 변화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비행의 변화유형을 ‘무비행 집단’, ‘저수준 지속 집단’, ‘중간수준 지속 집단’, ‘비행증가 집단’, ‘일시적 증가-감소 집단’, 그리고 ‘고수준 급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우선 ‘무비행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행을 거의 저지르지 않은 집단으로 시간에 따라 비행의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이 없으므로 절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저수준 지속 집단’은 무비행 집단을 제외하고 다른 비행변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경험이 많지 않은 집단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낮은 수준의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 집단도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비행의 증가나 감소의 경향이 없어 절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간수준 지속 집단’은 ‘저수준 지속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집단이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시간에 따른 비행경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절편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비행 집단의 추정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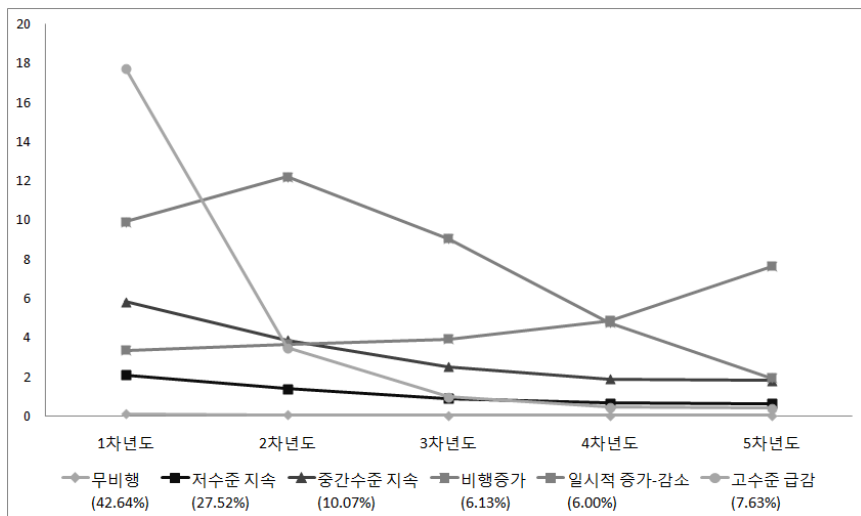
집단 구분	함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무비행	절편(Intercept)	-1.619	0.169	-9.564***
저수준 지속	절편(Intercept)	1.083	0.066	16.330***
중간수준 지속	절편(Intercept)	2.100	0.052	40.459***
비행증가	절편(Intercept)	1.047	0.135	7.784***
	선형(Linear)	0.498	0.035	14.232***
일시적 증가·감소	절편(Intercept)	1.522	0.179	8.500***
	선형(Linear)	1.349	0.134	10.060***
	이차(Quadratic)	-0.244	0.022	-10.990***
고수준 급감	절편(Intercept)	4.799	0.234	20.518***
	선형(Linear)	-1.780	0.276	-6.444***
	이차(Quadratic)	0.190	0.052	3.625***

* > 0.05, ** > 0.01, *** > 0.001

‘비행증가 집단’은 1차년도에는 낮은 수준의 비행을 저질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시간에 따라 비행빈도가 증가함으로 절편과 선형 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 증가·감소 집단’은 1차년도에 높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르고, 2차년도에는 더욱 비행빈도가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비행의 감소 정도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절편, 선형, 그리고 이차 함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수준 급감 집단’은 1차년도에는 비행빈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기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절편, 선형, 그리고 이차 함수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행변화 유형을 집단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무비행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 42.64%가 속해 있다. ‘저수준 지속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에서 27.52%가 속해 있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비행빈도가 2회 이하의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중간수준 지속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에서 10.07%로 나타나고 있고, ‘저수준 지속 집단’에 비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상대적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집단은 1차년도에 비행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감소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지속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비행증가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에서 6.13%가 속해 있고, 1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행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 증가-감소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 6.00%가 속해 있고, 1차년도에는 비행빈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질렀으나 3차년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소의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준 급감 집단’은 전체 청소년 중에서 7.63%가 속해 있다. 이 집단은 1차년도의 비행빈도가 매우 높았지만 2차년도에 급속히 감소하였고, 3차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림 3〉 낮은 자기통제력 집단의 비행변화유형

위의 <그림 3>에서의 결과와 같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 내에서도 1차년도의 비행의 빈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에 따라 비행빈도의 변화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가 비행이나 범죄, 그리고 더 넓게는 범죄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단일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의 결과와 같이 비슷

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내에서도 비행의 빈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반이론의 주장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빈도와 변화유형 차이를 상황적 요인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발전범죄학에서 범죄의 시작, 지속, 발전, 혹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비행친구, 부모와의 애착, 낙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기회요인(여가시간)을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낮은 자기통제 집단의 비행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낮은 자기통제 집단의 비행빈도와 시간에 따른 비행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무비행 집단과 비행경험 집단(저수준 지속, 중간수준 지속, 비행증가, 일시적 증가-감소, 고수준 급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친구의 영향은 1차년도와 비행친구 비율과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 변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1차년도에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행친구의 비율 변화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비행경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1차년도의 부모와의 애착과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전년도 대비 부모와의 애착 변화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인의 영향은 1차년도의 낙인 정도와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년도 대비 낙인의 변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의 낙인이 높을수록,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낙인의 변화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비행경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각 요인별로 비행집단 유형에 대한 설명력(R^2)을 비교하면, 비행친구가 .163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낙인(.082)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비행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무비행 집단과 비행경험 집단)

요 인		(무비행 집단 = 0) (저수준 지속, 중간수준 지속, 비행증가, 일시적 증가-감소, 고수준 급감 집단 = 1)				
		Exp(B)	Exp(B)	Exp(B)	Exp(B)	Exp(B)
비행친구	1차년도 비행친구	204,089***				225,467***
	2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58,540***				66,319***
	3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18,637***				20,951***
	4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8,829***				10,178**
	5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2,769*				2,653
부모와의 애착	1차년도 애착		1,004			1,047
	2차년도 애착 변화		1,047			1,098**
	3차년도 애착 변화		1,028			1,036
	4차년도 애착 변화		1,025			1,033
	5차년도 애착 변화		1,003			1,009
낙인	1차년도 낙인			1,601***		1,315**
	2차년도 낙인 변화			1,399***		1,219*
	3차년도 낙인 변화			1,184*		1,041
	4차년도 낙인 변화			1,110		,988
	5차년도 낙인 변화			1,094		1,085
여가시간	1차년도 여가시간				1,008	,992
	2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06	,991
	3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08	,997
	4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10	1,009
	5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01	1,003
개인특성	성별(남자=0, 여자=1)					,519**
-2 Log likelihood		683,377	,804,168	759,983	806,070	631,896
Cox & Snell R ²		,163	,008	,082	,005	,223

* > .05, ** > .01, *** > .001

모든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여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친구는 1차년도 비행친구의 비율과 2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의 비율 변화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2차년도 전년도 대비 애착 변화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1차년도에 비해 전체 평균보다 높아질수록 비행경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비행 간의 관계를 부적 관계로 가정하고 있어 사회유대이론에서 주장하는 관계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첫째, 변인의 측정과 관련하여 독립변인인 2차년도 부모와의 애착 변화는 해당 시기의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아닌 전년도 대비 변화량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경험 집단은 2차년도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낮더라도 전년도 대비 변화량은 높아질 수 있다. 둘째로는 비행증가 집단을 제외하고 비행경험 집단의 2차년도 비행빈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수준 급감 집단의 비행빈도 급감 경향은 다른 시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행경험 집단의 비행변화 경향이 부모와의 애착 변화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낙인은 1차년도의 낙인 정도와 2차년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가시간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남자 청소년일수록 비행경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경험의 유무만을 살펴보았을 때, 비행경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 낙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만으로 비행을 모두 설명하기보다는 비행친구나 낙인과 같은 상황의 변화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행경험 집단 중에서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저수준 지속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친구는 4차년도의 비행친구 변화를 제외하고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년도의 비행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2차년도, 3차년도, 그리고 5차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의 비율 변화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인도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여가시간은 1차년

도 여가시간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년도에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개별 설명력(R^2)을 비교하면, 비행친구가 .1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여가시간이 .040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 비행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수준 지속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

요인		(저수준 지속 집단 = 0) (비행증가 집단 = 1)				
		Exp(B)	Exp(B)	Exp(B)	Exp(B)	Exp(B)
비행친구	1차년도 비행친구	26.432**				32.439**
	2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35.199***				40.914**
	3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36.275***				52.432***
	4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3.483				3.887
	5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2.261*				2.476
부모와의 애착	1차년도 애착		.949			.896
	2차년도 애착 변화		.905			.819
	3차년도 애착 변화		.894			.863
	4차년도 애착 변화		.966			.919
	5차년도 애착 변화		1.032			.944
낙인	1차년도 낙인			1.168		1.044
	2차년도 낙인 변화			1.189		.977
	3차년도 낙인 변화			.983		.762
	4차년도 낙인 변화			.850		.695
	5차년도 낙인 변화			1.066		.991
여가시간	1차년도 여가시간				1.039*	1.029
	2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37	1.041
	3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09	1.038
	4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997	1.014
	5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997	1.005
개인특성	성별(남자=0, 여자=1)					1.294
-2 Log likelihood		114.011	145.824	140.229	141.373	95.320
Cox & Snell R^2		.164	.018	.027	.040	.226

* > .05, ** > .01, *** > .001

모든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여가시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비행친구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행친구의 영향은 시기별로 1차년도의 비행친구 비율,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 비율의 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수준 지속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의 시간에 따른 비행 변화유형은 1차년도의 비행빈도가 저수준 지속 집단에 비해 비행증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두 집단의 비행빈도 차이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차년도의 비행빈도와 이후 비행의 변화유형에는 주로 비행친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비행감소 집단(일시적 증가·감소 집단과 고수준 급감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 간의 비행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친구는 3차년도의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 변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차년도에 전년도 대비 비행친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을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과 낙인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여가시간은 1차년도의 여가시간 정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차년도의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개별 설명력(R^2)을 비교하면, 비행친구와 낙인이 각각 .232와 .082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행친구,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낙인은 모든 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여가시간은 1차년도 여가시간과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여가시간 변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년도의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전년도 대비 여가시간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아질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슷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 간에도 여가시간의 정도와 변화에 따라 비행의 증가 혹은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와 기회요인 간의 논의는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요인이 결정된다기보다 기회요인은

자기통제와는 독립적인 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회요인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가시간은 부모나 학교에서의 감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 여가시간은 감독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8〉 비행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행감소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

요인		(일시적 증가-감소, 고수준 급감 집단 = 0) (비행증가 집단 = 1)				
		Exp(B)	Exp(B)	Exp(B)	Exp(B)	Exp(B)
비행친구	1차년도 비행친구	.793				.123
	2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4.238				6.011
	3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5.625 [*]				7.331
	4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1.423				1.035
	5차년도 비행친구 변화	1.716				4.622
부모와의 애착	1차년도 애착		.968			1.032
	2차년도 애착 변화		.918			.887
	3차년도 애착 변화		.936			.983
	4차년도 애착 변화		.987			1.158
	5차년도 애착 변화		.945			1.027
낙인	1차년도 낙인			.815		1.043
	2차년도 낙인 변화			1.001		.828
	3차년도 낙인 변화			1.006		.834
	4차년도 낙인 변화			.860		.907
	5차년도 낙인 변화			.904		.826
여가시간	1차년도 여가시간				1.058 [*]	1.138 ^{**}
	2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38	1.113 [*]
	3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18	1.093 [*]
	4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25	1.121 [*]
	5차년도 여가시간 변화				1.004	1.016
개인특성	성별(남자=0, 여자=1)					1.170
-2 Log likelihood		78.754	101.684	97.479	96.885	56.771
Cox & Snell R ²		.232	.030	.049	.082	.401

* > .05, ** > .01, *** > .001

V. 결론

이 연구는 일반이론에서 가정하는 자기통제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특성으로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가 어린 시기에 형성되어 거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기통제의 안정성은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의 수준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안정성과 자기통제의 수준은 변하지만 개인들의 자기통제에 대한 순위는 유지되는 상대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통제의 변화유형 집단은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력 상’ 집단(4.92%), ‘자기통제력 중상’ 집단(26.84%), ‘자기통제력 중’ 집단(45.37%), ‘자기통제력 중하’ 집단(20.98%), 그리고 ‘자기통제력 하’ 집단(1.89%)과 같이 5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이들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자기통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집단의 자기통제 수준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상대적 안정성과 절대적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는 시간이 흐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통제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자기통제가 범죄나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집단만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기통제의 두 번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 6개의 비행변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집단은 ‘무비행’ 집단(42.64%), ‘저수준 지속’ 집단(27.52%), ‘중간수준 지속’

집단(10.07%), ‘비행증가’ 집단(6.13%), ‘일시적 증가-감소’ 집단(6.00%), 그리고 ‘고수준 급감’ 집단(7.63%)로 명명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들 집단 중에서 ‘무비행’ 집단과 ‘비행경험(저수준 지속, 중간수준 지속, 비행증가, 일시적 증가-감소, 그리고 고수준 급감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행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비행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 낙인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비행경험 집단 중에서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저수준 지속’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비행을 지속하는 집단에 비해 비행이 증가하는 집단에는 주로 비행친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시간에 따른 비행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비행감소(일시적 증가-감소 집단과 고수준 급감 집단)’ 집단과 ‘비행증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시간과 같은 비행의 기회요인이 많을수록 비행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비행친구, 낙인, 그리고 여가시간과 같은 기회요인이 비행의 유무나 시간에 따른 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가 비행이나 범죄의 단일한 원인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통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통제가 한번 형성되면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일반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원인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자기통제만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힘들고, 비행친구, 낙인, 혹은 비행의 기회요인도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황적 요인도 청소년 비행을 설명

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은 우선 가정에서 자기통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통해 문제성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문제성향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쉽게 비행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비행성향을 가진 청소년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이 여가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중등패널 자료는 조사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6차년도까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교 2학년 이전의 자기통제력 수준과 비행경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어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없었다. 둘째로는 청소년 비행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행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기통제와 다양한 차원의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자기통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청소년 비행과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청소년 비행의 다양한 유형들에 따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노성호.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18(4): 243-275.
- 박현수. 2011. “자기통제와 기회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21-146.
- 이경상·안선영.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VII: 1-6차년도 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227-249.
- 이성식. 2006. “낮은 자기통제력과 성인의 약물남용, 그 매개 및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연구』. 17(4): 333-362.
- 이순래·박철현. 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1-125.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Agnew, R. (200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In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Terence P. Thornberry(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Akers, R. L. and C. S. Seller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민수홍 외 역. 2005.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 Arneklev, B. J., J. K. Cochran, and R. R. Gainey,. (1998). Testing Gottfredson and Hirschi's "Low Self-Control" Stability Hypothesis: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1): 107-127.
- Barlow, H. D. (1991). Explaining Crimes and Analogous Acts, or the Unrestrained will grab at Pleasure Whenever They ca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229-242.

- Baron, S. W., D. R. Forde, and F. M. Kay,. (2007). Self-control, Risky Lifestyles, and Situation: The Role of Opportunity and Context in the Generla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 119-136.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2003). Self-control and Opporutiny. In *Contro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Chester L. Britt and Michael R. Gottfredson(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Grasmick, H., C. R. Tittle, R. J. Bursik, Jr., and B. 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 C., and W. Forrest,.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 1039-1072.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 Free Press.
- Jensen, A. R. (1980). *Bias in Mental Testing*. New York: Free Press.
-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 102-113.
- Mitchell, O., and D. L. Mackenzie,. (2006). The Stability and Resiliency of Self-control in a Sample of Incarcerated Offenders. *Crime and Delinquency*, 52: 432-449.
- Moffitt. T. E. (200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_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Terence P. Thornberry(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ernoster, R., C. Dean, A. R. Piquero, R. Mazerolle, and R. Brame,. (1997).

- Continuity and Change in Offending Career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 231-266.
- Pratt, T. C. and F. T. Cullen,.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3): 931-964.
- Raffaelli, M., L. J. Crockett, and Y. Shen,. (2005).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Self-Regula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 54-75.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pson, S. S. and G. Geis,. (2008). The Undeveloped Concept of Opportunity. *Out of Control: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E. Goode(e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M. G., and A. R. Piquero,. (2002).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457-471.
- Vazsonyi, A. T., J. E. C. Wittekind, L. M. Belliston, and T. D. van Loh,. (2004). Extend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to "the East": Low Self-Control in Japanese Adolescen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3): 189-201.
- Winfrey, L. T., T. J. Taylor, N. He, and F. Esbensen,. (2006). Self-Control and Variability over Time: Multivariate Results Using a 5-Year, Multisite Panel of Youths. *Crime and Delinquency*, 52: 253-286.
- Yun, I. and A. Walsh,. (2011).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of Comparative Criminology*, 55(3): 445-459.

Stability of Self-Control and Effects of Situational Factor on the Juvenile Delinquency at the Level of Low Self-Control

Park, Hyu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test characteristics of self-control which was assumed in a general theory. The first characteristic of self-control becomes set between the ages of 8-10, and once established self-control is maintained over the life-course.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self-control is sole cause of criminal and analogous behavior.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st through the 5th annual datasets of middle school panel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o empirically test two characteristics of self-control, and the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lf-control could classify in five groups. And the level of self-control in these group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over time. In this result, self-control can be seen as having stable characteristic. Next, to test characteristic that self-control is sole cause of crime or delinquency, situational factors examined the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in targeting groups with relatively low self-control. In this results, situationa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change of delinquency over time. This results showed that self-control and situational factors affect juvenile delinquency.

❖ Key words : Statbility of self-control, Juvenile delinquency, Semiparametric group based model

투고일 : 3월 7일 / 심사(수정)일 : 3월 26일 / 게재확정일 : 3월 26일
